

새 책

▶노무현과 바보들1·2권(손현욱 기획, (주)바보들 엮음)=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작인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 제작을 위한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영화 제작팀은 2년간 전국을 돌며 총 82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책은 '영화에서 못다한 말들'이라는 콘셉트로 200자 원고지 2만5000매가 넘는 인터뷰 녹취본의 축약본이다. 실감, 총 3만8000원.



▶아메리카의 망명자(아리엘 도르프만 지음, 황정아 옮김)="칠레와 미국, 두번의 9·11 사이에서"를 주제로 단 작가의 망명기를 담은 회고록이다. 저자에게 '아메리카의 망명자'는 칠레를 두고 떠난 것, 살바도르 아옌데를 대통령으로 세운 선거혁명으로 유토피아가 울 듯 약속한 것, 그리고 칠레를 끝내 다시 떠나야 했던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창비, 1만6000원.



▶명랑 다크한 주인공의 사랑 있는 골목 책방(김수홍 글·사진)=시를 좋아하고 골목을 좋아하는 저자가 제주 시골 해안 마을에 작은 책방을 열면서 2년여 동안 겪었던 체험과 가졌던 생각, 스쳐갔던 느낌들을 특유의 명랑 다크한 분위기로 써낸 이야기다. 저자는 진짜 지향하고자 했던 삶의 모습을 50대에 접어들어 제주의 자연과 사람과 문화에서 위로 받으며 알게 된다. 대숲바람, 1만2000원.



▶푸른 세계(알베르트 에스피노사 지음, 변선희 옮김)=살아갈 날이 사흘 밖에 남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다. 또 그 소년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임박한,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목가적인 장소 '그랜드 호텔'에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연금술사, 1만4000원.



▶신이 선택한 의사:더 피치션1·2권(노아 고든 지음, 김소영 옮김)=미신과 편견의 시대에 진정한 의사가 되고자 열정을 불태운 한 인간의 열정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립은 자신에게 치유자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페르시아의 당대 최고의 의사 이븐 시나에게서 의학을 전수받고자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11세기 유럽과 이슬람 문명을 살아 숨쉬듯 생생하게 표현한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히며 영화·뮤지컬('더 피치션')로 제작되기도 했다. 해나무, 각 1만6500원.



▶비운의 역사현장 아! 경교장((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엮음)=27년동안의 항일투쟁을 마친 임시정부와 그 수장인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위주로, 당시 언론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2003년 어렵사리 출간됐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반인에게 공급되지 못했고, 16년이 지나서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멘토프레스, 3만원.



# 그 땅에 살았으나 부재했던 그, 그녀들

## 오세종의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 오키나와전쟁으로 불가시화 전후 행방 묘연한 조선인들 현사·시정촌사 뒤지며 좇아

오키나와전쟁 당시 미군이 설치한 수용소 안에 '옛 위안부'가 등장한다. 화려한 파란색 옷을 입은 여성은 사진을 넘어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연유로 오키나와까지 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오키나와전쟁 당시 부대마다 있던 '군속 위안부'로 짐작될 뿐이었다. 여성만이 아니다. 일본 식민지시대에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남성인 군부가 있었다. 위안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군부 중에는 기적적으로 정체가 밝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식민지시대 강요된 일본식 이름이었다. 오키나와의 어느 곳에 묻혔지만 지금까지도 분명을 모르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와 류큐대학 오세종 교수가 쓴 '오키나와와 조선인의 틈새에서'는 그들을 불렀다. '조선인의 '가시화/불가시화'를 둘러싼 역사와 담론'이란 부제가 달린 책으로 오키나와 땅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전후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묻혀버린 그, 그녀들의 흔적을 혼신을 다해 쫓았다.

'오키나와의 조선인'의 위치는 중중적이고 복잡적이다. 그들은 식민지 역사, 오키나와전쟁, 미군 점령하를 살아오는 동안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존재였다. 1972년 '복귀' 이전까지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조선인은 재일조선인도 아니었고 불가시화된 자들, 귀속처가 불분명한 자들, 그 틈새에 끼인 자들이었다.

저자는 전쟁에 동원되거나 그 이전부터 틀림없이 존재했던 오키나와의 조선인들이지만 전쟁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그들을 찾기 위



해 오키나와 현사, 시정촌사, 오키나와와 한국 신문 자료, 회고록, 위령비와 탑에 새겨진 글귀까지 뒤졌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제도적으로 부재한 것처럼 취급당했던 조선인들이 희미하게 얼굴을 드러냈다.

오 교수는 "오키나와의 조선인들은 오키나와와 조선 사이에 가로놓인 존재였다. 그런 탓에 오키나와 사람들과 많은 경험을 공유하지만 고유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살아온 만큼 오키나와 조선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자료 발굴과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지연 옮김, 소명출판, 1만9000원. 전선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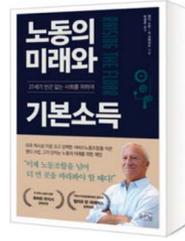
# 불안정한 노동환경의 미래에 대한 제언

## 앤디 스티의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기술의 발달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그 간극을 넓히며 풍요 속 빈곤의 시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며 인간의 고유 영역은 인공지능과 첨단기계에게 하나둘씩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직업의 불안정성은 커져만 가는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 220만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서비스 노동조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의 한계를 인지한 그는 조합장직을 내려놓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CEO, 미래학자, 노조 지도자, 경제학자, 투자가, 역사가, 정치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며 기술의 발전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통찰한다. 이를 통해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그는 자칭 '고부가가치 직업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고소득자'와 '수많은 실업자들'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사회로 전



락할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우려로 몰아넣은 기술적 진보로 자아실현과 공공이익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바꿈으로써 21세기 경제 회복의 잠재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자리는 줄고 직업의 불안정성은 커져가는 이 시대에 기본소득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갈마바람, 1만8000원. 백금탁기자

## 이 책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1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1'에 실린 '1965년 한경면 신창리 식계' 중에서 기제사 도구로 쓰개된 솥뚜껑과 대나무 치롱(왼쪽부터).

## "지역문화로 표준화·일반화에 균열"



얼마 전 제주문화원에서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1'을 묶어냈다. 부설단체인 향토문화연구회 회원들이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겪었던 일을 직접 글로 쓰고 사진을 발굴해 제작한 자료집이다. 2010년 꾸려진 향토문화연구회는 제주 전래 농기구, 놀이, 제사 음식 등 생활문화 관련 이야기와 유물을 조사해왔고 '옛 제주인의 삶', '제주도 생활문화', '추억의 밥상', '기억으로 보는 제주생활문화'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다.

몇 차례 경험한 향토문화연구회 세미나는 등떠밀려 동원되는 행사장과는 결이 달라보였다. 연구자 못지 않은 열정과 노력으로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역의 눈으로, 지역을 기록하는 이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엮은 '로컬 지향의 지역문화운동'을 펴들면서 제주문화원을 먼저 떠올렸다. 지역 문화운동이 지역의 생활문화와 만나야 하고 그것이 지역의 문화원이 맡아 "다양한 지역적 삶 기록해야"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사반세기 역사를 지닌 제주문화원의 그같은 활동이 '지역문화운동'의 좋은 예로 여겨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직도 설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지난 1년 동안 대담, 좌담으로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미래를 토론했고 논의한 결과물을 모았고 가까운 일본의 지역 활동 사례를 취재, 소개했다. 책이 그러가는 방향에는 지방문화원이 아닌 지역문화원이 되어야 하고 향토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생활문화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국가주도의 관성과 획일화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길 만하다. "지금 당장 활용하지 않더라도 만 명의 생애와 삶의 도구, 공간, 음식, 일상까지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표준화, 일반화되고 있어요. 육구도, 먹는 음식도 표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소적이고 다양한 삶의 양식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지역적 삶을 이해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창, 1만4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세상의 모든 이벤트

창간 30주년 since 1989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축제/ 기획/ 진행/
- 기업행사(준공/기공식/팀빌딩)
- 레크리에이션 ·단합대회 ·체육대회
- 교육기관 행사 ·컨퍼런스

**JIN.com**  
jincom.alltheway.kr/  
진커뮤니케이션

대표 진 두 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88

T.755-1119 F.0303-3443-5004 H.010-8774-5005